

# 2000년

# 저레은 안무가 작곡곡전



## 부산시립무용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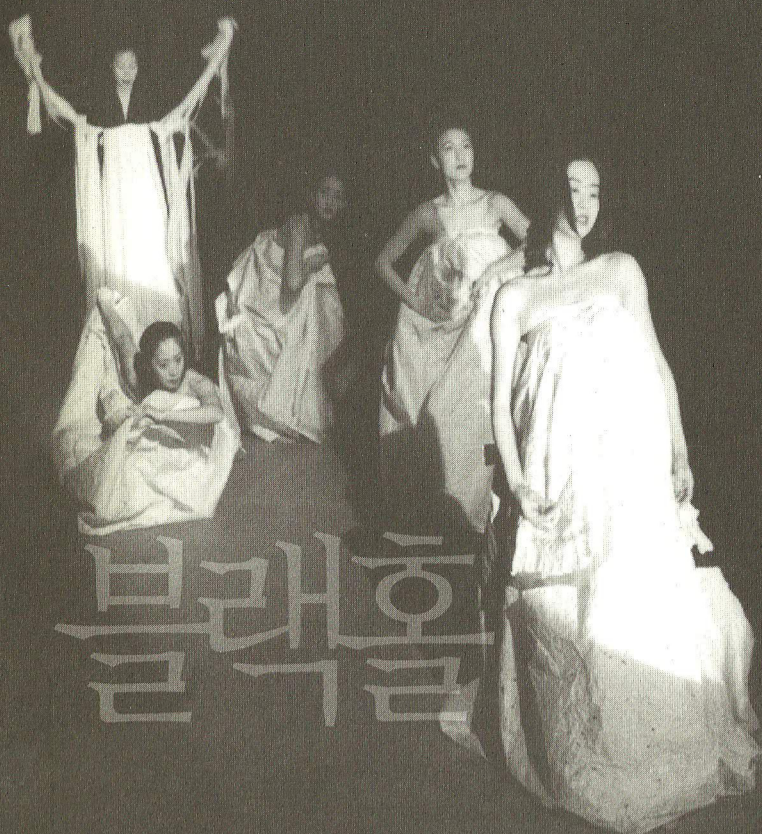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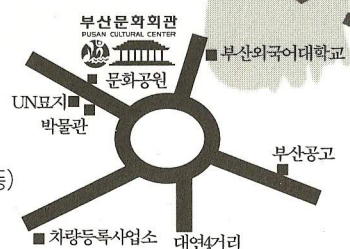
무용감독: 이노연 (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)

### 2000.6.15(목) 19:30

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 
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

#### 교통편

- 68번 (용당-문화회관-주례-동아대학-하단)
- 78번 (용당-문화회관-양정-연산동-온천2동)
- 93번 (용당-문화회관-조방앞-당감동)
- 134번 (용당-문화회관-중앙동-송도 안마을)
- 378번 (용당-문화회관-연산동(시청앞)-온천2동)
- 25번 (용당-문화회관-서면-당감동)
- 51번 (전포동 대우자동차-문화회관-부산대학-구서동)
- 51-1번 (문화회관-외국어대(회차)-부산대학-구서동)
- 51-2번 (감만동-외국어대-문화회관-부산대학-구서동)



## 블랙홀

안무: 한수정

## 어떤 그리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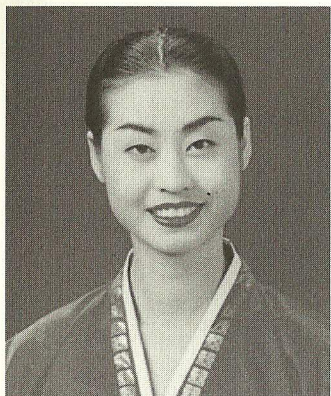


안무: 장래훈

## 무제치능



안무: 박재현



# 블랙홀

안무 : 한수정

경성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한수정은 <여인 등신불>, <아가들도 세상을 뜨는구나>, <꽃대궁>등에 출연하였으며 부산시립무용단 제36회 정기공연<시집가는 날>에서 주역을 맡기도 했다. 무대에서 제 빛을 발하는 그녀의 주요 작품으로는 <파시>와 <잘려진 날개>가 있다.

출연 : 강휘지, 이화성, 박창희, 김진영, 한수정

진행 : 허경미, 류준

스텝 ●음악편집: 이동민 ●의상제작: 김성만 ●무대제작: 백철호

우리는 살아가고 있다.

계속 살아가고 있다.

이대로...

일상 속에 녹아 버리고만 나 아닌 것들의,  
나일 수 없는 것들과의 온탁한 죽제.

삶의 군더더기들이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군요.

그래서 나를 잃어갑니다.

살아가는 만큼 잃어가고 있습니다.

그는, 내 안의 가장 영롱한 그는 속삭입니다.

모든것이 다 거짓이야,

죽어야 다시 살아...

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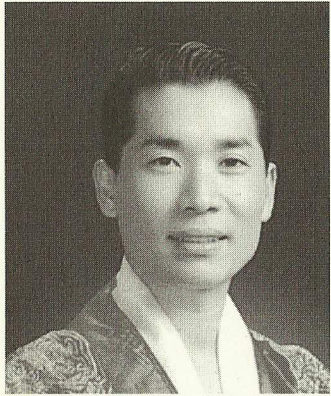
우리가 그리는 꿈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.

그것은 새로운, 또 다른 세계의 열쇠,

「블랙홀」에 이르는 길이죠.

그곳에 이르면,

우리의 연약하고 순결한 그 때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.



# 어떤 그리움

안무 : 장래훈

타고난 춤꾼 장래훈은 1979년 부산시립무용단에 입단하여 <여자 새 되어 울다>, <보리피리>, <바람이여> 등에서 주요 무용수로 활동하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. 부산시립무용단의 <심청>의 심봉사 역 뿐 아니라 기타 수많은 공연에서 주역을 맡으며 「신춘무용제」, 「젊은 춤꾼들의 가을나기」, 「젊은이들의 전통춤 연구 발표」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이미 두 차례의 개인 춤판을 갖기도 했다. 또한 「98방콕 아시안게임 폐막식 축하공연」 및 「뉴질랜드 공연」 등 해외공연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. 그는 현재 부산시립무용단의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

출연 : 김주영, 임형준, 이경림, 정은정, 이현정, 장래훈

진행 : 서지영, 오숙례

스텝 ● 음악편집: 김태연 ● 의상제작: 김성만 ● 무대제작: 백철호

마음 속 한 폭의 그림 속에 그녀가 있습니다.

깊고 그윽한 골짜기를 지나 맑은 산빛의 생기가 감도는,  
그 곳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찰이 있습니다.

때때로 설움에 북받쳐 끓어오르는 분노, 혼자라는 외로움,  
숫구치는 욕망들로 목놓아 울며 밤이 새도록, 목이  
싹 때 까지 불경을 외워 보지만 내 슬픔보다 오히려 더  
괴로울 여인에 대한 그리움은 저를 더욱 잠 못 들게 합니다.

매화꽃 피고 산수유, 연산홍 붉게 무르익어 가는 봄 속,  
그 세월의 무상함, 인생의 빛나는 허망함 속에 나의 그녀  
가 서 있습니다.



# 무제치늪

안무 : 박재현

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 중 이미 한국무용협회 주최 「제31회 전국 신인무용제」에서 '살풀이춤'으로 수석상을 받은 바 있는 박재현은 안정감 있는 춤 호흡으로 「99. 학」에서 주역을 맡는 등 의욕적인 활동으로 주목 받는 단원이다.

출연 : 임현정, 박성호, 오수연, 김미란, 박성미, 박재현  
진행 : 이성원, 김경미

스텝 ●음악편집: 이동민 ●의상제작: 김희진 ●무대제작: 김원태

●총진행 : 홍기태, 이정식 ●소품 : 안정숙 ●기획 : 박소윤  
●조명 : 광동인 ●음향 : 전인수 ●무대 : 서중철

무제치늪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늪으로 수천년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무수한 생명을 길러 내고 있는 곳이다.

자연과 인간의 삶의 원형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매개체로 응집되어 지면서 자연이 곧 인간 세계의 영혼으로 자리한다. 그곳으로의 춤의 여행을 시작해 본다.

작품의도:

무제치늪이 생존의 공간이라는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맞추어 그곳의 자연사를 표현한다.

침묵이 깔린 공간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모습  
무방비 상태의 노출

손끝으로부터 느껴오는 무성한 생명력을 느끼며  
엄숙한 자연과의 대화를 시작해 본다.